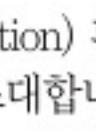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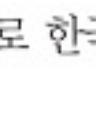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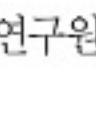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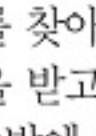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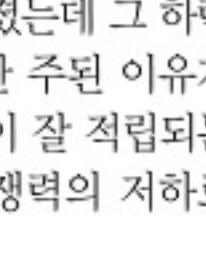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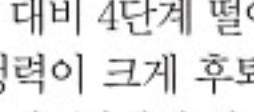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13:30 ~ 17:00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타워동 3층 데이지홀
 | 주 죠 |  한국연금학회
 NPS 국민연금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 후 원 |  생명보험협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이란 주제로 한국연금학회, 국민연금연구원, 보험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공동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성장과 K-POP으로 대표되는 K-Culture까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초저출산율과 노후빈곤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시스템의 낙후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점입니다. 특히, 연금 분야는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세계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떨어졌는데 그 하락 폭은 7년 만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주된 이유가 연금 고갈위기, 정부 재정적자, 정부 지출확대 등의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를 평가한 순위가 종전 35위에서 50위로 15계단 추락했습니다. 연금 제도의 위기가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국가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이 공적연금 분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고, 그마저도 모수적 개혁에 국한되고 있어 국가적 연금 재설계를 통해 행복한 국민 노후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연금의 보완적 혹은 대체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3층 연금 체계 전반의 효과나 효율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선진국 연금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국가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된 대상은 퇴직연금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서 3층 연금제도로서의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입자들의 적립금 연금화율은 2021년 계좌 수 기준으로 4.3%에 불과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히 적립금의 연금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립금 확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연금화율 증대라는 질적 발전을 진전시켜 가야 합니다.

퇴직적립금 연금화 확충의 걸림돌로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낮은 신뢰도, 연금화 유인 기제의 부족, 적립금 증대를 위한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 등이 큰 장벽이며, 세부적으로 연금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합리화, IRP 세액의 연금 적립화, 가입자 중심 연금제도 개선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2년 11월

한국연금학회 회장 이창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권문일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

세미나 일정

일정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3:45	<p>개회식</p> <table border="1"> <tr> <td>개회사 이창수 회장 (한국연금학회) 축사 권문일 원장 (국민연금연구원) 환영사 안철경 원장 (보험연구원)</td> <td>사회: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td> </tr> </table>	개회사 이창수 회장 (한국연금학회) 축사 권문일 원장 (국민연금연구원) 환영사 안철경 원장 (보험연구원)	사회: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개회사 이창수 회장 (한국연금학회) 축사 권문일 원장 (국민연금연구원) 환영사 안철경 원장 (보험연구원)	사회: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13:45~15:20	<p>주제발표</p> <table border="1"> <tr> <td>발표 1 : 김성일 박사 (경희대학교)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 발표 2 : 유후선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 발표 3 : 오병국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td> <td>좌장: 이항석 부회장 (한국연금학회)</td> </tr> </table>	발표 1 : 김성일 박사 (경희대학교)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 발표 2 : 유후선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 발표 3 : 오병국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	좌장: 이항석 부회장 (한국연금학회)
발표 1 : 김성일 박사 (경희대학교)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 발표 2 : 유후선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 발표 3 : 오병국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	좌장: 이항석 부회장 (한국연금학회)		
15:20~15:30	휴식		
15:30~16:45	<p>종합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동현 과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박준범 박사 (주)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오영수 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교수 (송실대학교) 전용일 교수 (성균관대학교) 		
16:45~17:00	질의응답		
17:00	폐회		

문의처 : 사무국 Tel. 02-2003-9924 Email. koreapension@hanmail.net